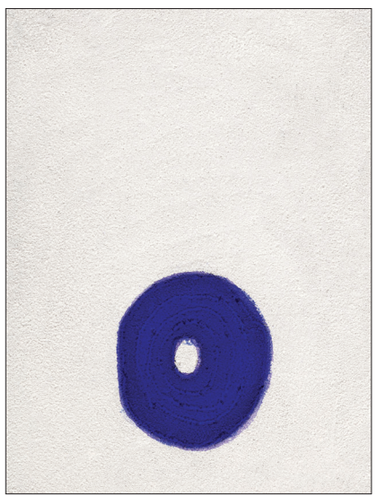
# 청색으로 표현한 수행과 공감의 미학

## 윤양호 개인전 'NUR WEIS NICHT'

### 갤러리 비선재 7.20 ~ 9.17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단색화로 수행과 공감 등의 미학을 추구해온 윤양호 작가의 36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갤러리 비선재는 7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윤양호 작가의 앵콜전 'NUR WEIS NICHT(오직 모를 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비선재에서 열리는 윤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지난 3월 열렸던 '단색화' 전시가 작가의 시기별 흐름과 미학적 개념을 정립하는 전시였다면 이번 전시는 수행과 공감 등의 지난 전시에서 정리된 개념을 심화시키는 전시로 2018년 신작 40여 점을 집중 조명한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내면의 정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조형언어는 도형과 색채이다.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을 상징하는 형태로서 윤 작가가 원에 부여하는 가치는 우리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들은 다시 일정기간 순환하며 또 다시 변화한다. 이러한 반복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행적인 관점으로 삶의 지혜와 존재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수행은 인식의 확장이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는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작가는 원형의 확장된 형태로 색면과 무수히 많은 점을 캔버스에 담아내기도 한다. 안료를 수 십여 차례 덧칠하고 점을 찍기 위한 반복적인 붓질은 행위성을 강조하며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수행의 미학이라 볼 수 있다.

윤 작가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빨려 들어갈 듯 화면을 채운 색채이다. 돌가루, 모래와 함께 작가의 주요 재료인 청색 안료는 단순하고 절제된 추상형태에 정신의 깊이를 더한다. 그는 이브 클랭이 발명한 IKB(International Yves Klein's Blue)를 사용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물감을 다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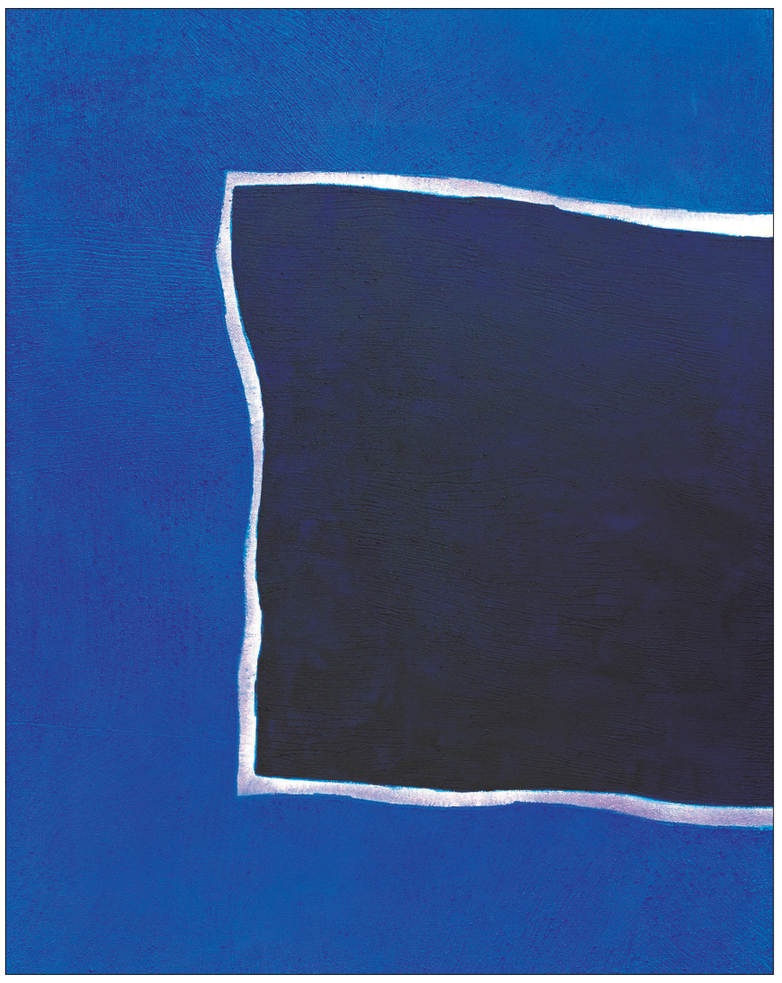
**신작 40여 점 집중조명**
**반복적 붓질… 수행의 미학**
**다양한 변형의 청색 미학**
**교감 · 공감 넘어 '치유'로**

체득한 경험으로 다양한 변형의 청색을 표현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파리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브 클랭의 작품을 처음 본 이후 연구를 거듭하던 윤 작가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정신성에 대한 탐색이었음을 주목했다. 그는 이브 클랭이 허공을 탐색하며 추구했던 정신성과 그의 선 수행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며,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고 인식되어왔던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현하는 유사한 정신성을 통하여 작가는 시 · 공간을 넘어 인간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은 서로 소통한다. 작가와 관객은 작품을 통하여 교감하고 공감한다. 윤 작가의 작품은 더 나아가 치유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행의 과정을 담은 작품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작가는 그가 그랬듯이 관객이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얻기 위해 복잡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아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관념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에너지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작가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갤러리 비선재는 전속작가인 윤양호의 심화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비선재와 함께 한 지난 개인전과 아트페어에서 이미 입증을 받으며 개최되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259.1×193.9㎝.

# 茶로 하나 되는 '찻자리'

### 2018 명원세계차박람회 8월 2~5일 서울 코엑스 B홀
### 평화다례, 화랑다례 등 다양한 다례 선보여



지난해 열린 명원세계차박람회.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통일을 열기 위한 4 · 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찻자리와 차를 나누는 '평화다례'가 열린다. 우리 차문화와 산업을 이끌어온 명원문화재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 특별무대에서 '2018 명원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

평화다례는 (재)명원문화재단이 역사적으로 행해온 다례와 현재 한반도 화합 분위기를 접목시킨 찻자리이다. 의식의 모든 부분에서 남과 북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자리에서 차는 남한의 한라산, 하동, 보성의 녹차를 사용하며, 물은 백두산 청정수를 사용한다. 남쪽 지역의 삼색다식과 북쪽 지역의 개성약과를 다식으로 올리고, 남한의 무궁화와 북한의 작약으로 찻자리를 장식한다.

다례는 '차 예절'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얼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다례를 행해왔다. 삼국시대에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풍류를 즐긴 '화랑다례',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름철 연지를 찾아 만발한 연꽃과 시와 차를 함께 음유한 '상연다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명절이나 왕실의 경사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진연다례' 등 궁중다례도 성행했다. 이번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남북 화합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각계각층에서 행해온 특별한 다례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재)명원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민족 평화다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례를 요일별로 선보인다.

8월 2일 개막식에서는 제23회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과 제1회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며, 화랑무예와 화랑다례, 선비연화다례(상연다례), 궁중무용을 선보인다. 검법과 다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의 절도 있는 공연과 차 생활을 엿보고, 선비들의 흥과 기품을 담은 찻자리를 관람할 수 있다.

8월 3일에는 세계적인 차와 만나는 월드티심포지엄과 월드티아트콘테스트가 진행되며,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다인들의 마음을 담은 한민족 평화다례가 펼쳐진다. 8월 4일에는 청소년과 일반인 다례경연대회로 차와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8월 5일 폐막식 공연으로 조선 고종 당시의 '궁중진연다례와 춘앵전'을 재현한다. 문의 (02)742-7190 박재완 기자



우예인 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 학생들이 그린 천년고찰 범어사

### '범어사를 담다' 展
### 불교문화테마전시관 7.27~12.30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범어사를 감상한다.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8 하반기 테마전시 '범어사를 담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운영하는 불교문화테마전시관(부산도시철도 범어사역 5번 출구 아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범어사를 그린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림은 부산 범어사 조계문(보물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을 비롯하여 범어사 내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학생들의 독특하고 순수한 시각으로 그린 수묵, 수채화 등의 다양한 형식의 그림들이다. 실물이나 사진과는 다른 느낌의 천년 고찰 범어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